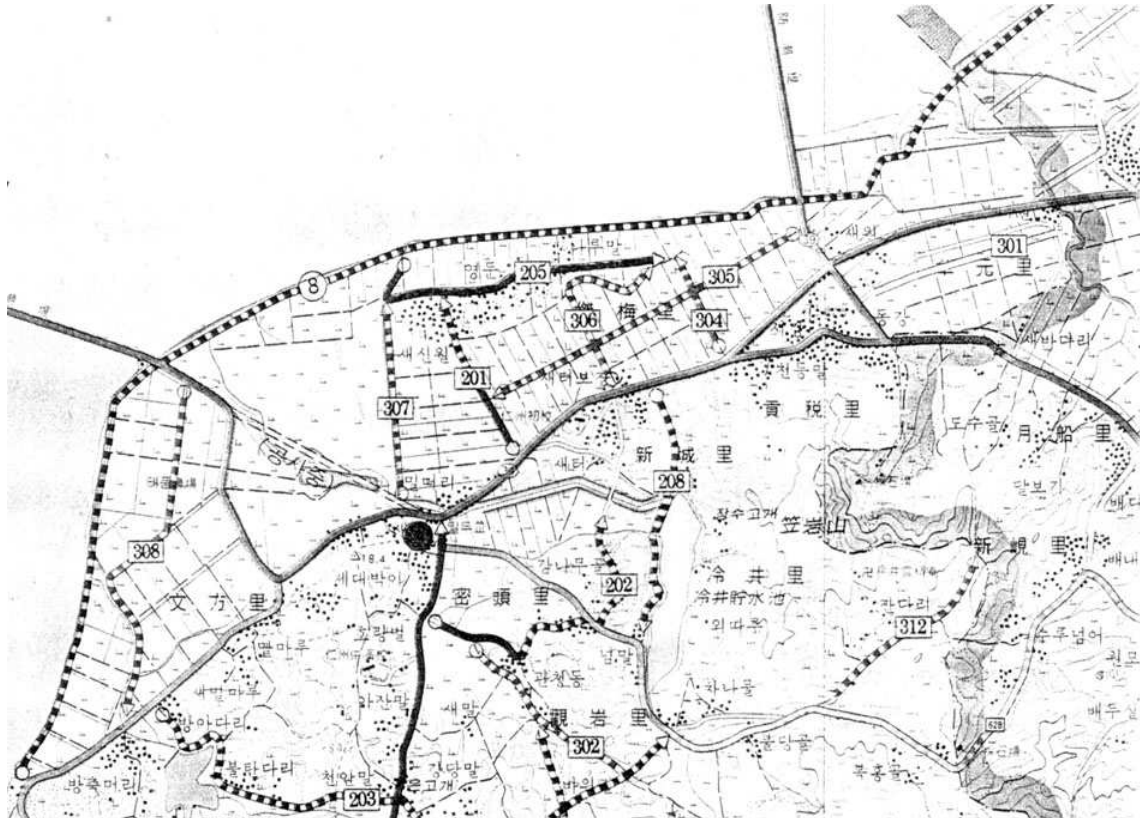


공세리·貢稅里

공세리는 아산군 현내면과 일서면의 접경으로 공세창이 있으므로 공세지,공세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흥면의 서강리, 하신원리와 현내면의 동강리 일부를 병합하여 공세리라 하여 인주면에 편입되었다. 공세리는 4개리로 분리되는데 1리는 동강(공세지), 2리는 서강 3리는 새원 4리는 천등마을로 구성되어있다. 공세리의 총인구는 1,762명이며 가구수는 622가구이며 이중 415(67%)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공세리 위치도>



⊗ 동강, 서강, 새원, 천등마을

공세리(공세지)는 바닷물이 바로 마을 앞까지 들어와서 한 줄기는 공세리 북쪽에서 안성천과 만나고 다른 한 줄기는 서쪽에서 삼교천과 연결되는 등 수로교통의 요충지로서 전에는 곳창지가 있는 구릉의 바로 밑에까지 물이 들어 왔다고 한다. 공세리의 곳창이 없어진 것은 조선 영조 38년 충청남도 해운관을 폐지 하였기때문이고, 지금은 곳창의 흔적이 없어지고, 곳창을 에워싸면서 축조 되었던 성축성벽 약4km 정도의 흔적만 남아 있으며 곳창 운영 시절에 이곳에서 벼슬을 한 해운관관비라 하여 현 인주의용소방대 옆에 10개의 비가 있어 이곳을 지방 기념물 21호로 지정하였다. 성안에서는 주민 가옥들이 20여채가 있고, 또한 곡식을 나르던 뱃터는 1894년 충남 지역 최초로 지어진 공세 천주교 건물이 세워 졌으며 1900년대 초 왜정 시절 인주면사무소를 성안에 지어 활용하다가 1955년에 면 사무소를 밀주리로 옮기면서 2년후 인주단위농협공세분소로 현재까지 쓰고 있다. 공세리 3구와 4구는 공세리의 한 마을로 공세리 북쪽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아산만을 인접해 새로 언을 막고 마을이 되었으며 도계 마을로 경기도 현덕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공세4리는 서강 남쪽에 있는 마을로 천등현이 있다고 한다. 남문거리 1762년 (영조38년) 전 공세 곳창시정에 남쪽에 있는 문의 이름인데 현재에는 인주 파출소 앞의 마을이다.

<조사당시 공세리 마을 관련사진>



1) 위치

공세리(임암산)는 경도 126-55-00, 위도36-52-10에 있다. 공세리는 34번위로하고 아래로는 입암산으로 냉정리와 구분되며 동으로는 음봉면 월선리와 나뉘어져 있다. 입암산이 가진 이름이 여러 가지라서 이산의 유래 및 전설등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 같다.

밀두교에서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공세리 1구가 있고, 같은 5km 공세리 2구가 있다. 또, 공세리 2구에서 왼쪽으로 4분정도 걸어가면 공세리 3구가 나오며 공는 공세리 후문에 자리한다.

2) 현황

인구분포 현황에서는 공세4리인 천등마을의 인구수가 제일 많으며 공세3리인 새원마을이 65명으로 인구분포에서 제일적게 나타났다. 생업에서는 새원마을이 100%가 농업에 종사하며 서강이 75% 동강 65% 천등 57%순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현황에서는 논은 동강 마을이 84ha로 많으며 밭은 21ha로 천등마을로 나타났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동강	541명	298명	243명
서강	560명	289명	271명
새원	65명	29명	36명
천등	596명	288명	308명

- 생업

구분	계	농업	기타
----	---	----	----

마을명			
동강	100%	65%	35%
서강	100%	75%	25%
새원	100%	100%	
천등	100%	57%	43%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동강	103ha	84ha	19ha
서강	88ha	73ha	15ha
새원	25ha	22ha	3ha
천등	90ha	69ha	21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이앙기
동강	68	5		30	51
서강	70	5	30	70	10
새원	49	11		18	31
천등	40	4	40	40	8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기타
동강	1개소	1	1조	
서강	1개소	1	1조	
새원	1개소	1	1조	
천등	1개소	1	1조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동강	40	60	40	60	85	110	90	45	11
서강	50	30	30	70	100	140	80	50	10
새원	4	7	3	5	6	15	20	5	

천등	25	70	60	100	89	160	80	45	7
----	----	----	----	-----	----	-----	----	----	---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강씨	기타
동강	16%	16%	5%	4%	6%	1%	52%
서강	11%	7%	5%	3%	3%	8%	63%
새원	29%	3%	2%	2%			64%
천등	6%	5%	1%		6%	1%	81%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동강	17	15	15	10
서강	12	13	10	5
새원	3	2	2	1
천등	10	8	9	4

－ 최고령자

공세1리의 최고령자는 오보배씨로 95세이시고, 공세2리는 93세의 전신진 할머니이시다.

공세3리는 78세의 황재순씨이며 공세4리는 87세로 이씨 할머니이다.

－ 호당평균소득

공세1리의 호당평균소득은 년에 약800만원이며 공세2리는 약600만원, 공세3리, 4리는 약700만원이다.

3) 자연경관

아산만 방조제 공사로 마을의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공세 천주교 주변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4) 마을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현내면과 일서면의 접경으로 공세창이 있으므로 공세지, 공세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흥면의 서강리, 하신원리와 동강리 일부를 병합하여 공세리라 하여 인주면에 편입됨.

5) 입향

공세리 마을에 터를 잡고 산 성씨는 안동 권씨이며 지금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6) 지명

공세리 : 옛공세창이 있었던 마을. 공세리의 주 마을임.

동 강 : 공세지 동쪽에 있는마을. 전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배가 닿았었다고함.

새 원 : 공세지 북쪽 들 가운데 있는 마을. 새로 언을 막고 마을이 되었음.

서 강 : 공세지 서쪽에 있는마을.

전에는 이곳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조세를 배에직접 실어 냈음.

창 안 : 공세창 성안에 있는 마을 .

천등말 : 서강 남쪽에 있는 마을."천등혈"이 있다 함.

갯바산 : 공세지 남쪽에 있는 산. 상봉에 바위가 갯 모양으로 되었음
 당 재 : 공세지 남쪽에 있는 산
 동막재 : 무니골 너머에 있는 산. 미륵이 있음
 공세들 : 공세리 앞에 있는 너른 들.
 신원릿들 : 신원리에 있는 들.
 무니골 : 천등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공기바위 : 당재 서북쪽 기슭에 있는 바위 .모양이 공기와 같음.
 무당바위 : 당재 너머에 있는 바위 바위가 넓는데 무당이 춤추다가 떨어져 죽었다고함.
 원길바위 : 갯바산에 있는 바위. 높이 50길이 정도 됨.
 남문거리 : 공세창성남문 밖에 있는 거리.
 밤점거리 : 서강과 신성리 사이에 있는거리. 밤과는 집이 있었음.
 비석거리 : 공세창성 남문 밖에 있는 길. 삼도 해운 관관 장차주, 한진기, 진휴, 이동근, 이선
 만과 현감 이석희, 오경선과 영의정 김좌근 군수 이석구 들의 불망비가 있음.
 침해당터 : 공세창 북쪽 높은 돈대에 있는 침해당의 터. 부호 성 시망이 세웠는데 현재 천
 주 성당이 되었음.
 서강 저수지터 : 서강 남쪽에 있는 저수지.
 1944년 8월에 준공 되었으나 현재 마을이 형성 되었음.
 돌뿌리 : 공세창성 북쪽에 내민 돌부리 전에는 이것이 선창이 되었음.
 서강원논 : 서강 앞에 있는 논 . 새로뚝을 막고 개척 하였음.
 공세리 미륵불 : 천등말 남쪽 무니골 밭 한 가운데에 있는 미륵 높이가 3m 가량되는 미륵
 상임. 조각이 희미함.
 공세창성 : 공세지에 있는 공세창성. 이조때 아산, 서산, 하산, 연산, 임천, 정산, 공주, 홍주,
 연기, 덕산, 서천, 직산, 부여, 남포, 예산, 당진, 평택, 온양, 청주, 문의, 회덕, 진잠, 옥천, 회
 인등 40 고을의 조세를 받아 쌓았음 중종 18년(1523)에 창고 80간을 지었는데 고종때 폐지
 가 되고 현재 천주성당을 비롯하여 민가가 들어섰고 성벽은 동남쪽에 남았는데 문화재로 지
 정 되었음.
 서강다리 : 서강에 있는 다리.
 돌뿌리 : 공세창 성북쪽에 내민 돌뿌리이다. 전에는 이것이 선창이었다.

7) 전설 및 유적

천주교회

조선시대 조새미를 보관하던 창고인 조창이 있던 자리이다. 조창은 수송이 편리한 수로 연
 변에 설치 했는데, 신증동국 여지승람 아산현 창고조에는 이곳에 중종 18년 80칸의 창고를
 짓고 아산, 한산 연산, 당진등 인근 40개 고을의 세곡을 거두어 보관 하였다가 아산만의 물
 길을 이용해 60척의 조선운으로 서울 경창으로 수송하였다 한다. 이러한 조창은 영조 38년
 에 충청도 해운관이 폐지되면서 기능이 약화되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없어졌다는 데 지금
 도 석축의 일부가 남아있다. 또한 이곳은 편리한 해운교통 때문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뿌
 리를 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는데, 천주교 박해 당시 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
 유입되었고,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1866년 대원군의 병인박해 때는 갈매리에 거주하는 박익
 서, 박원서, 박의서등 천주교 신자 11명이 수원 감영에 끌려가 참수를 당하기도 하는 등 파
 란 만장한 천주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으로 1895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천주교회 본당이 창
 설되면서 초대 성일론(에밀리오) 신부가 부임하여 포교 활동을 하다가 1922년 군내 최초의
 외국 건축양식인 고딕식 건물로 현 성당을 준공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산만

삼국유사에 동명왕 주몽의 아들 비류가 고구려에서 남아 최초로 도착하여 정착하였던 곳으

로 고대에는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나당연합군과의 전투 현장으로서 근대에는 청·일전쟁의 시발로 왜세에 의해 전쟁터가 되는 등 우리 민족의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삼도해운 관관비

이 관관비는 인주면 공세리의 아산 공세곶창이 있었던 옛 창사앞 도로변에 위치 하였으며 비는 모두 9기 인데 그동안 마을 도로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그중 3개는 현감의 선정비이며 나머지6기는 해운 관관비인데 가장 오래된 것이 순치 6년(1649)이고 최근 것으로는 강희47년(1708)이다. 이 비는 조선 중종 18년(1523)에 창고 80간을 건축하고 조세를 거두어 보관하였다가 서울로 운송키위해 이곳에 주재한 삼도(충청, 전라, 경상)해운관관의 청덕 기념비이다.

8) 풍습 및 집단행사

이 고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계가 존재하지만 모두사라지고, 쓸계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나 위찬계는 자기부락에 초상이 생기면 손과 발을 걷어 부치고 많은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혼인계가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하면 서슴없이 도와준다고 한다.

9) 특별히 소개 할만한 인물

최익수

독립운동가 호는 일청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215번지에서 출생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20세에 청운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가 수학하던중 대부분 유학생들이 점차로 항일 독립사상이 싹트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는 3.1 독립운동에 가담, 재일 유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의 길을 떠난 그는 그곳에서 충남대표의 책임을 맡고 군자금 모금의 사명을 띠었다. 본국으로 돌아와 대지주를 상대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다. 이때 아산 금융 조합에 근무하던 사촌처남 진수린을 설득하여 아산군 금융조합 금고의 현금을 손에 넣는데 성공하여 상해로 떠났는데 이때가 1921년 이었다. 그는 상해에서 계속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차 군자금 모금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왜경의 수배인물로 올라있는 그는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자기집에 숨어서 약 반년을 은거하던중 어느날 왜경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집 주위를 포위하고 체포 하려는 순간 기적으로 빠져나와 서울로 피신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서울에서 최석창이라는 동지를 포섭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동행 하였다.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던중 신의주에서 왜경에게 체포 되고 말았다. 왜경은 심한 고문으로 그의 자백을 받으려 했으나 그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아서 동료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모면할수 있었다. 그런 후 종로 경찰서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취조를 받고 공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공주지방법원에서 그는 3년 징역에 10년 집행유해 인도를 받았다. 8.15해방후 과거의 친구이자 동지였던 조병옥 박사외에 여러 친구들이 정계에 진출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혼탁한 정치풍조에 실망한 그는 끝까지 사양하고 초야에 묻히어 청렴결백하게 여생을 보냈으며 한때 정부 당국의 권고에 따라 방위군 간부직을 잠시 맡은바 있었다. 1964년3월 25일 병으로 서거했다.

묘소는 고향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에 있다.

10) 종교단체

기독교 대한 침례 교회 - 공세 침례교회

불교 조계종 - 고성사

천주교 - 공세 천주교회

11) 공장현황

곡물제분업 업체인 - (주)우리밀 , 가금도살업 - (주)삼척 농수산회사

12) 마을변천과정

아산만 방조제 건설 공사로 마을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마을의 특산물은 대파와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